

# 흡연에 대한 기초조사 보고서 I

이 도 영\*

## 〈 목 차 〉

I. 서론 및 관계문헌 조사	III. 결 과
II. 연구방법	IV. 요약과 토의
1. 설문지의 구성	참고문헌
2. 조사 대상	Abstract
3. 결과의 분석방법	

## I. 서론 및 관계문헌 조사

새로운 자유는 새로운 책임을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흡연은 음주와 똑같이 개인의 사적인 자유인 것 처럼 여겨지지만, 관행상 중독(습관성) 행동인 줄 알면서도 마약으로 분류 되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 결과는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교육적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엄청난 손실과 해를 초래하고 있으나, 만연된 불감증은 문제의 접근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WHO(1995)에서는 흡연은 전세계에 만연된 질병으로 선언하고 의료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자들이 발벗고 나서야할 문제로 "마약퇴치를 위한 전쟁"을 선포하였다. 본 연구는 흡연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로써 설문조사를 통하여 흡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 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금연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회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최근의 미국의 University of Michigan의 한 연구팀(Bachman, Wadsworth, O'Malley, Johnston, & Schulenberg, 1997)의 33,000명 이상의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및 약물 사용 행동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근 20년(1976-1994)동안 그러한 행동의 변화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수연구해서 발표한 것은 본 연구의 의도와 설계에 적지 아니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Bachman 등의 연구에서 그들은 청소년기의 약물사용 변화는 성년기로 전환하면서 수반되는 새로운 자유와

\* 철학박사(상담심리학 전공) 탐라대학교 교양과장부

책임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행동변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결혼과 임신을 지적하였다. 다른 요인으로는 20대 초반을 넘어 성숙하여 가면서 약물사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거양식의 변화가 약물사용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부모의 집을 떠나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거나 친척관계가 아닌 다른 어른들과 살게 되는 환경의 변화는 음주와 흡연 및 다른 약물사용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군대생활 환경이 알코홀과 담배의 소비를 증가시킨 반면에 다른 불법적인 약물사용을 급격히 줄이게 하였다.

위의 연구에서 흡연과 다른 약물의 사용과의 사이에 흥미있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흡연은 다른 약물의 사용과 적극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공히 대다수가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흡연자들 가운데 남자들의 1/4, 여자들의 1/3 이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인 반면에, 흡연자의 1/2 이상이 음주자였다. 비흡연자들에 비해서 이들 중 상당수가 또한 심각한 음주문제를 보고하였다.

미국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가운데 흡연문제에 대한 연구로부터 상당한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 한국의 실정도 이와 비슷하다는 의견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본 연구자는 입수하지 못하였다. 후기 청소년기의 젊은이들 상당한 부분이 계속해서 정기적인 흡연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장년들의 일상 흡연율은 1977 과 1981년 사이에 상당히 줄어든 반면 (29%에서 20%로), 그후 12년 간격동안 아주 적은 숫자로 줄어들었다 (1993년에 19%로 오직 1.0%만). 1980년 이래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우면 신체적인 (또는 다른) 해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큰 위험”을 지각하는 장년들의 비율은 오직 5.8% 상승했다 (1993년에 70%). 아직도 1/3의 장년들이 흡연과 관련된 커다란 위험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더욱 곤란한 문젯거리는 저학년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8학년과 10학년 (중2, 고1)의 흡연비율은 각각 17%와 25%이었다. 각별한 관심사는, 중1의 53%만이 그리고 고1의 61%만이 하루 한갑씩 흡연하는 경우 그러한 행동으로부터 상당히 큰 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날마다의 흡연시작은 6학년에서 9학년(중3) 사이(11-12세와 14-15세)에 가장 흔히 일어난다. 고등학교 졸업후에도 좀 시작은 한지만, 고등학교 졸업후 처음 2년안에 가벼운 흡연에서 골초(heavy smoker)로 전환한다. (Wilson, 1997, *Drugs, Society, and Behavior* 97/98).

1990년대 한국의 경우, 남자성인의 71%가 흡연하며, 30대 남자는 4명중 3명이 흡연하는 것으로 김경빈(1993)의 자료를 인용보고 하고 있다. 고교 남학생 1학년은 21.6%, 2학년은 54.5%, 3학년은 61.6%가 현재 흡연하며, 그리고 고교 여학생의 흡연률은 남학생보다 훨씬 낮은 편이나, 고1은 5.0%, 고2는 9.4%, 고3은 3.3%로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3)의 자료를 인용보고 되고 있다(김계현, 1997, p.197).

Quick과 그 동료들의 연구보고(1997)에 의하면, 흡연이 개인과 사회의 각별한 관심사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인체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때문이며, 이로 인한 고통과 손실은 흡연하는 한 개인의 사적 기호를 초월하는데 있다. 흡연은 단일의 가장 황폐화시키는 예방할 수 있는

사인(preventable cause of death)이다. 심장병과 폐암으로 인한 모든 사망들의 1/4에서 1/3까지가 흡연에 기인한다. 미국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은 390,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138,000명이 암으로, 115,000명이 심장병으로, 57,000명이 만성 기관지염과 기종으로 죽는 경우의 사망자 수가 포함된다. 흡연은 또한 만성 기관지염과 기종, 협심증, 치명적이 아닌 뇌졸중, 그리고 다른 담배로 인한 질병등으로 인하여 측정할 수 없는 고통과 불구의 원인이 된다.

1980년대 동안은 간접흡연(passive smoking)도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보고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서도 공공장소와 직장에서의 흡연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1995년도의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은 \$34,000,000,000였으며, 생산성의 상실과 같은 간접적인 비용은 \$18,000,000,000였다. 미국에서는 흡연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스트레스와 흡연은 양자 모두 심장질환의 발병과 관계가 있다. 흡연과 알코홀 소비는 실직과 더불어 증가한다 (Quick et al. 1997).

Hager & Kaufman (News Week, 1997)의 여러 정보들을 종합보고한 것에 의하면, 흡연하는 동안 음주를 하면, 그 해는 증폭된다고 한다. 담배 연기속에 있는 23종의 독소들(poisons)과 43종의 발암성물질들(carcinogens)은 흡연자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방관자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필터가 있는 한 개비의 골연(.68g)의 연기속에는 약 .5~1.4mg 의 니코틴과, .5~18mg의 타르(tar)와, .5~18mg의 일산화 탄소가 들어 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 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대충 20배가 되며, 심장병에 걸릴 확률은 4배가 된다.

위와 같은 정보 및 다른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금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실질적인 건강상의 이득을 가져다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의 미국인(48,000,000명)이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며, 금연하고자 시도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다. 비록 약 42~46%의 성인 일상 흡연자들이 해마다 금연을 시도하지만, 오직 14%도 안되는 흡연자들이 한 달 정도만 금연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Wetter et al., 1996).

Blaine et al. (1997)은 10대 청소년들 20%~70%가 그들의 담배를 직접 구할 수 있으며, 소매점에서 67%의 성공률로 담배를 구입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의 흡연문제에 대해서, 김계현(1997)은 그들은 담배의 피해를 직접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은 적고 오히려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만 많다고 하며, 특히 담배도 술처럼 성인의 전유물 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담배를 피움으로서 성인이 되는 듯한 착각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남자 청소년들은 흡연이 남성다움의 상징처럼 느껴지며, 여성에게는 흡연이 '남여평등', '여성운동', '기존관습의 타파'의 상징으로 착각되기도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주요 동기는 '호기심'과 '친구와 어울리다가'로 나타났다(김계현, 1997, p.198).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의 해악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과학적 사실을 부정(deny)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우고도 장수한 사람의 [극단적으로 드문, 연구자 삽입] 예를 들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행운이 있으리라는 왜곡된 인지현상이다. 이점이 금연운동을 어렵게 만드는 흡연자의 왜곡된 인지현상이다. 또한 담배회사들의 교묘한 광고전략도 금연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광고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담배와 멋, 인기, 아름다움(여성), 남성다움(남성) 등을 동일시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김계현, 1997, p.198).

한국의 경우 TV와 같은 메스컴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쓰고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인상이 짙다. 예컨대, 저녁 거의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황금시간(prime time, 오후 8시-9시) 대에 방영되는 연속극의 경우 담배나 술을 마시는 장면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모방이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행동과 사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학습의 제일 원리는 모방이다. 앞서 김계현은 광고의 무의식적 동일시 효과라고 하였는데 이는 실험적으로 증명해 보이기가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다고 본 연구자는 본다.

본 연구조사의 가설 : 흡연에 대한 설문지를 확대 실시하기 이전에 예비조사(pilot study)를 통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잠정적으로 설정하여 보았다.

1.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많은 면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흡연행동에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 차이가 있다.
3. 흡연자들 중에도 각 연령층(본 보고서에서는 일반인, 고교생, 대학생으로 잠정 구분해서 봄) 간에는 흡연에대한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설문지의 구성

흡연에 대한 설문지는 여러 연구 보고서와 흡연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상담연구에 필요하다고 본 연구자가 판단되는 38개의 문항들로 구성된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된 부록>으로 게재하였다.

## 2. 조사 대상

제주도에 거주하는 고교 2학년(남학생 363명, 평균연령 16.92세), 대학생(2-3학년 134명, 평균연령 22.35세), 그리고 일반인(177명, 평균연령 35.97) 합계 674명을 대상으로 별첨 부록과 같은 설문지를 통하여 그 반응을 조사하였다. 남녀 구성비율은 남자 565명 여자 104명 무기표 5명이었다. 세 부적인 직업군별 구성 빈도와 퍼센트는 <표II-1>과 같다.

<표II-1> 직업군별 빈도와 퍼센트

구 분	빈 도	퍼 센 트
공무원(시청)	51	7.6
교사(교육공무원)	42	6.2
회사원(은행+농협)	61	9.1
사회 교육원생	23	3.4
대학생(3학년)	58	8.6
대학생(2학년)	76	11.3
고교 2학년 남학생	363	53.9
합 계	674	100.0

## 3. 결과의 분석방법

응답자의 각 항목에 대한 빈도를 측정, 퍼센트를 산출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연령층간의 반응률의 차이는  $\chi^2$  검정에 의하여 그 유의도를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면할당관계로 흡연자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일부만을 1차로 게재하였다.

### Ⅲ. 결 과

상기한 6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SPSSWIN Version 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Ⅲ-1〉 흡연여부와 각 그룹간 빈도와 비율

구 분	흡 연 여 부			합 계
	흡연한다	흡연안한다	단연함	
일 반 인	86(48.59%)	75(42.32%)	16(9.04%)	177
고2남학생	105(28.61%)	237(69.58%)	21(5.72%)	367
대학2-3학년생	60(44.78%)	71(52.99%)	3(2.24%)	134
합 계	251(37.28%)	383(56.83%)	40(5.94%)	674

표 〈III-1〉에서 일반인이라 함은 시청 공무원(51명), 고교 교사(42명), 은행원과 농협직원(61명), 및 사회교육원생(23명)을 통합한 177명을 일컫는다. 대학2-3학년생은 대학 2학년(76명)과 3학년(58명)을 통합한 134명을 일컫는다. 이렇게 세분화된 그룹들을 보다 큰 그룹으로 통합한 이유중 하나는 통계 처리와 그 결과의 해석의 편의를 위한 때문이었다. 카이 스퀘어 절차에서 각 셀(cell)의 빈도가 5이상이어야만 하는 제약조건이 따른다. 따라서 위 표에서 단연(quit smoking)한 응답자의 경우는 흡연자와 동일한 설문 항목들에 모두 답하도록 요구되었으므로 통계처리 과정에서는 흡연자 그룹으로 통합하였다.

〈표Ⅲ-2〉 세분화된 그룹별 흡연자 수와 각 그룹내에서의 흡연 퍼센트

구 분	인 원	흡연한다	퍼센트	비 고
공무원(시청)	51	28	54.90%	남42, 여 9
고교 교사	42	25	59.52%	남41, 여 1
회사원(은행+농협직원)	61	35	57.38%	남47, 여 13
사회교육원생	23	0	-	남 4, 여 19
고2 남학생	363	105	28.93%	
대학 3년생	58	10	17.24%	남10, 여48
대학 2년생	76	50	65.79%	남58, 여15
합 계	674253		-	

\* 여자 흡연자 수는 대학 2학년과 3학년생중 각각 3명씩 관찰되었다.

〈표III-2〉에서 보면 시청 공무원의 경우 약 55%의 응답자가 흡연하며, 고교 교사의 경우는 약 60%가 흡연하며, 회사원(은행과 농협직원)의 경우는 약 57%가 흡연하며, 사회 교육원생은 전무하며, 고교 2년 남학생의 경우 약 29%가 흡연하며, 대학 3학년의 경우는 약 17%가 흡연하며, 그리고 대학 2학년의 경우는 약 66%가 흡연하여 다른 그룹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기서 보여주는 특징중 하나는 흡연은 남성의 독점물로 보인다. 여자의 흡연율은 약 2.4%에 불과하였다.

이하의 보고서 양식에서는 일반인, 고교생 그리고 대학생이라 명명하였다.

〈표III-3〉 각 그룹별 흡연하게 된 주된 동기

구 분	흡연을 하게 된 주된 동기							합 계
	친구들과 어울려서 호기심으로	어른들 또는 선배가 권해서	나 혼자 피워보고 싶어서	어른이된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서	군입대(방위포함)해서	직장을 가지고 나서	기 타	
일반인	46(45.54%)	3(2.97%)	12(11.88%)	3(2.97%)	26(25.79%)	8(7.92%)	3(2.97%)	101
고교생	97(77.6 %)	6(4.8 %)	19(15.2 %)	1(8 %)	-	-	2(1.6 %)	125
대학생	36(58.06%)	1(1.6 %)	13(20.96%)	1(1.6 %)	5( 8.06%)	2(3.2 %)	4(6.4 %)	62
합 계	179(62.15%)	10(3.47%)	44(15.27%)	5(1.74%)	31(10.76%)	10(3.48%)	9(3.12%)	288

〈표III-3〉에 의하면 일반인의 경우 흡연하게 된 주된 동기로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호기심으로가 으뜸으로 약 46%를 보여주며, 그 다음으로는 군입대 또는 방위근무로 인하여서가 약 26%를 보여주었다. 고2의 경우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호기심으로 흡연하게 된다는 반응이 약 78%로 으뜸을 보여주며 그 다음으로는 나 혼자 피워보고 싶어서가 약 15%를 보여주었다. 대학생의 경우도 고교생과 비슷하나 그 비율이 다소 높낮이가 있어 보인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볼 때도 당연히 친구들과 어울려서 호기심으로 흡연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으뜸으로 또래집단 압력(peer pressure)이 가장 주요한 동기로(62%) 보인다. 혼자 피워보고 싶은 호기심도 그 다음 원인으로(15%) 보인다. 남자들의 경우 군입대로 인한 동기가 약 11%로 세 번째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4〉 각 그룹별 하루에 피우는 담배 개비수

구 분	하루에 피우는 담배 개비수					합 계
	10개비 이하	11~20 개비	21~30 개비	31~40개비	41개비 이상	
일반인	12(12.12%)	55(55.55%)	25(25.25%)	7( 7.07%)	-	99
고교생	99(83.19%)	18(15.13%)	1( .84%)	-	1(.84%)	119
대학생	21(35.59%)	34(57.63%)	4( 6.78%)	-	-	59
합 계	132(47.65%)	107(38.63%)	30(10.83%)	7(25.27%)	1(.36%)	277

〈표III-4〉에 의하면 일반인의 경우 하루에 피우는 담배 개비수는 절반 이상(56%)이 11-20개비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고교생의 경우는 피울 수 있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인지 83%가 10개비 이하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11-20개비를 피우는 경우도 상당수(15%)가 된다. 대학생의 경우는 일반인과 거의 동등한 비율로 11-20개비 정도가 약 58%되며, 10개이하로 피우는 경우는 약 3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절반 정도(48%)가 10개이하로 피우는 것으로 보인다. 11-20개비 피우는 경우는 약 39%되며, 21-30개비를 피우는 경우도 약 11%가 된다.

〈표 III-5〉 각 그룹별 흡연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연령

구 분	흡연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연령					합 계
	10~13세	14~17세	18~21세	22~25세	26~29세	
일반인	1(1 %)	5( 5 %)	59(59 %)	34(34 %)	1(1 %)	100
고교생	10(7.93%)	87(69.05%)	29(23.02%)	-	-	126
대학생	1(1.61%)	17(27.42%)	37(59.68%)	6( 9.68%)	1(1.61%)	62
합 계	12(4.17%)	109(37.85%)	125(43.40%)	40(13.89%)	2(.7 %)	288

〈표III-5〉에서 보면, 성인들과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흡연을 시작한 나이는 각각 약 60%와 43%가 18-21세 사이인 반면, 청소년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69%) 14-17세 사이에 시작하며, 10-13세 사이에 시작한 경우도 약 8% 정도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14-21세 사이가 약 80%를 점유한다. 26세를 넘어서 시작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게 보인다(0.7%).

〈표 III-6〉 각 그룹별 즐겨 피우는 담배의 상표

구 분	즐겨 피우는 담배의 상표								합 계
	88	말보로	디스	심플	솔	옛세	기타	아무것이나	
일반인	9(9.4%)	1(1.04%)	31(32.29%)	8(8.33%)	4(4.17%)	12(12.5%)	25(26%)	6(6.25%)	96
고교생	3(2.6%)	26(22.2%)	83(71%)	-	-	2(1.7%)	2(1.7%)	1(.9%)	117
대학생	6(9.7%)	4(6.45%)	34(54.8%)	1(1.6%)	1(1.6%)	3(4.8%)	3(4.8%)	10(16.1%)	62
합 계	18(6.55%)	31(11.27%)	148(53.8%)	9(3.3%)	5(1.8%)	17(6.2%)	30(10.9%)	17(6.2%)	275

〈표III-6〉에 의하면 일반인의 경우 주로 즐겨 피우는 담배의 상표는 '디스(THIS)' 약 32%였다. 고교생의 경우는 '디스'가 71%로 가장 많이 선호하며 그 다음 것으로는 '말보로(MALBORO)' 로써 22%의 선호도를 보인다. 대학생의 경우 '디스'의 선호도는 약 55%였다. 전체적으로 보아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디스'를 선호하며(약 54%), '말보로'가 11%였다.

〈표 III-7〉 과거 청소년기 때 또는 현재 청소년인 경우 담배 구하는 방법

구 분	담배를 구하는 방법					합 계
	상점에서 직접산다	선배(또는 어른)를 통해서	부모님 심부름을 가장해서	친구를 통해서	기 타	
일반인	66(81%)	1(1.2%)	8(9.9%)	3(3.7%)	3(3.7%)	81
고교생	94(77%)	2(1.6%)	7(5.7%)	18(14.8%)	1(8%)	122
대학생	51(87.9%)	1(1.7%)	1(1.7%)	5(8.6%)	-	58
합 계	211(81%)	4(1.5%)	16(6%)	26(10%)	4(1.5%)	261

※ 담배를 구하는 방법의 설문은 '현재로 청소년인 경우, 또는 청소년기를 회상해서' 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나 대학생들은 본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III-7〉에서 고교생이나 일반인 또는 대학생 모두 약 80% 정도가 상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교생의 경우 친구를 통해서 얻고 있다가 약 15% 정도가 된다.

〈표Ⅲ-8〉 담배를 구입하려다 거절당한 경험

구 분	담배구입시 거절경험		합 계
	있 다	없 다	
일 반 인	8( 9.8%)	74(90.2%)	82
고 교 생	109(90.1%)	12( 9.9%)	121
대 학 생	24(40 %)	36(60 %)	60
합 계	141(53.6%)	122(46.4%)	263

〈표Ⅲ-8〉에 의하면 고교생의 90% 이상이 담배를 구입하려다 상점주인 또는 종업원들로부터 판매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표Ⅲ-7〉에서 보는 바와같이 상점으로부터 직접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약80%에 달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표Ⅲ-9〉 각 그룹별 담배를 피우다 곤욕을 당한 경험

구 분	담배를 피우다가 어른들로부터 곤욕을 당한 경험		합 계
	있 다	없 다	
일 반 인	35(43.2%)	46(56.8%)	81
고 교 생	76(62.3%)	46(37.7%)	122
대 학 생	29(49.2%)	30(50.8%)	59
합 계	140(54 %)	122(46 %)	262

〈표Ⅲ-9〉에서 보면 고교생의 경우 담배를 피우다가 어른들로부터 곤욕을 당한 경험을 가진 경우가 60%가 된다. 전체적으로도 절반 이상이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보인다.

〈표Ⅲ-10〉 흡연 직후 속이 매스꺼움을 느끼는 정도

구 분	흡연직후 속이 매스꺼움을 느끼는 정도				합 계
	항상느낀다	자주 느낀다	가끔 느낀다	전혀느끼지 못한다.	
일반인	2(2 %)	5(5.1%)	56(56.6%)	36(36.4%)	99
고교생	6(4.9%)	11(9 %)	86(70.5%)	19(15.6%)	122
대학생	2(3.3%)	4(6.7%)	44(73.3%)	10(16.7%)	60
합 계	10(3.6%)	20(7.2%)	186(66.2%)	65(23 %)	281

〈표Ⅲ-10〉에 의하면 젊은이들의 경우 약 2/3가량이 흡연 직후 속이 매스꺼움을 가끔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는 한편 성인의 경우는 약 57% 가량으로 약간 덜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전혀 못 느끼다는 비율은 성인의 경우가 거의 배이상(36%)가 된다. 고교생의 경우 자주 느낀다는 경향이 일반인의 (5%) 거의 배가 된다(9%).

〈표Ⅲ-11〉 각 그룹별의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하고자한 시도

구 분	흡연량을 줄이거나 끊고자 한 시도			합 계
	있 다	아직 없다	앞으로 그럴 것	
일 반 인	83(83.8%)	10(10.1%)	6(6.1%)	99
고 교 생	108(89.3%)	9(7.4%)	4(3.3%)	121
대 학 생	55(90.2%)	4(6.6%)	2(3.3%)	61
합 계	246(87.5%)	23(8.2%)	12(4.3%)	281

〈표Ⅲ-11〉에서 보면 전체 그룹의 약88%가 흡연량을 줄이려고 시도했거나 금연을 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1-1〉 각 그룹별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을 시도한 횟수

구 분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을 시도한 횟수			합 계
	자주 있다	있는 편이다	가끔 있다	
일 반 인	25(30.1%)	32(38.6%)	26(31.3%)	83
고 교 생	55(52.4%)	37(35.2%)	13(12.4%)	105
대 학 생	17(32.7%)	23(44.2%)	12(23.1%)	52
합 계	97(40.4%)	92(38.3%)	51(21.3%)	240

〈표Ⅲ-11-1〉은 앞선 표와 연관된 하위 질문으로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을 시도했다면 얼마 만큼 자주 있는 편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약 80%의 흡연자들이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하려고 상당히 시도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교생들의 절반이상이 일반인이나 대학생보다 더 자주 시도하는 것으로 특기할 만하다.

〈표Ⅲ-12〉 각 그룹별 흡연으로 인한 입원이나 의사와 상의한 경험 유무

구 분	흡연으로 인한 입원이나 의사와 상의한 경험		합 계
	있 다	없 다	
일반인	3(3.1%)	95(96.9%)	98
고교생	1(.8%)	118(99.2%)	119
대학생	3(4.8%)	57(95.2%)	60
합 계	7(2.5%)	270(97.5%)	277

〈표Ⅲ-12〉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거나 의사와 상의한 적은 대단히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2.5%). 문항 13-1-1에서 그 회수를 물어 본 결과는 대학생중 한 사람은 2번 또 다른 한 사람은 5회의 입원 또는 상의 회수를 보였으나 표로 보여 주는 것은 여기서 생략했다.

〈표Ⅲ-13〉 각 그룹별 흡연장소

구 분	흡 연 장 소				합 계
	실 내	실외에서만	장소 불문	타인이 없는 곳에서만	
일반인	8(8.1%)	23(23.2%)	62(62.6%)	6(6.1%)	99
고교생	3(2.5%)	29(23.8%)	41(33.6%)	49(40.2%)	122
대학생	7(11.5%)	19(31.1%)	31(50.8%)	4(6.5%)	61
합 계	18(6.4%)	71(25.2%)	134(47.5%)	56(19.9%)	282

〈표Ⅲ-13〉에 의하면 일반인의 약 63%가 장소를 불문하고 흡연한다고 보고한 반면 대학생은 약 51%, 고교생은 1/3가량이 그렇다고 보고했다.

고교생을 보면 실외에서만 그리고 타인이 없는 곳에서만으로 응답한 것은 약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약 30%)과 대학생(약 25%)의 경우와 상당히 대조적이다.

〈표Ⅲ-14〉 각 그룹별 담배갑에 적힌 경고문의 의식 반응

구 분	담배갑에 적힌 경고문에 대한 반응				합 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읽어보지만 개의치 않는다	의식하면서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인다	읽어볼 때마다 꺼림직하다	
일반인	9(9.1%)	56(56.6%)	34(34.3%)	-	99
고교생	20(16.7%)	33(27.5%)	62(51.7%)	5(4.2%)	120
대학생	6(9.8%)	25(41.0%)	27(44.3%)	3(4.9%)	61
합 계	35(12.5%)	114(40.7%)	123(43.9%)	8(2.9%)	280

〈표Ⅲ-14〉를 보면 일반인의 경우 흡연자의 약 57%가 담배갑에 적힌 경고문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에 대해서 ‘읽어보지만 개의치 않는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흡연하는 고교생과 대학생의 경우 각각 약 1/3과 1/4의 반응자들이 경고문을 읽어보지만 개의치 않는다고 보고하여 일반인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소위 ‘흡연계의 신참’인 고교생의 경우는 ‘고참’ 일반인(1/3)과 대학생(44%)에 비해 1/2 이상이 ‘의식하면서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전혀 의식치 못했다’는 층도 고교생의 경우 그들의 고참들 보다 배로(약 17%) 많았다. ‘읽어볼 때마다 꺼림직하다’는 데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는 한 사람도 없는 데 비해 고교생과 대학생의 경우는 약 4-5%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인 흡연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때 ‘개의치 않는다’가 약 41%, ‘꺼림직하다’가 약 44%로, 꺼림직하다는 편이 약간 우세하였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각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는 반응 빈도치가 5이하인 구간(cell)이 두 곳 있어서 검정을 할 수가 없다. 표집의 수를 더 늘린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표Ⅲ-15〉 각 그룹별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실에 대한 불안반응 정도

구 분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실에 대한 우려				합 계
	해칠 것 같아 늘 불안하다	종종 불안한 생각이 든다	별로 생각 못해 보았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일반인	14(14.4%)	49(50.5%)	30(30.9%)	4(4.1%)	97
고교생	23(19%)	67(55.4%)	25(20.7%)	6(5%)	121
대학생	3(6.4%)	39(64%)	16(26.2%)	3(4.9%)	61
합 계	40(14.3%)	155(55.6%)	71(25.4%)	13(4.7%)	279

〈표III-15〉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50%—64%의 흡연자들이 '종종 불안한 생각이 든다'고 보고하였다. 고교생은 약 1/5(19%)가량이 '해칠 것같아 늘 불안하다'고 한 반면 대학생 흡연자의 경우는 약 5%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별로 생각 못해 보았다'는 반응자도 상당수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보아 흡연자들의 1/4가량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약 5%의 응답자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하였다.

〈표III-16〉 각 그룹별 음주시 흡연하게 되는 경향성

구 분	음주시 흡연과의 관계		무응답 또는 해당 안함	합 계
	평소보다 더 많이 피우게 된다	평소와 같이 피운다		
일반인	91(89.2%)	8( 7.8%)	3( 2.9%)	102
고교생	87(69 %)	21(16.7%)	18(14.3%)	126
대학생	49(77.8%)	10(15.9%)	4( 6.3%)	63
합 계	227(78 %)	39(13.4%)	25( 8.6%)	291

〈표III-16〉에서 볼 때 약 90%의 일반인, 70%의 고교생, 그리고 약 78%의 대학생 흡연자들이 음주시 담배를 평소 보다 더 많이 피우게 된다고 보고 하였다. 여기서 간접적인 시사는 고교생 음주자가 상당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 IV. 요약과 토의

별첨과 같은 '흡연에 대한 설문지'를 통하여 291명(현재 흡연자 251명, 단연자 40명)의 흡연자들의 흡연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여 보았다. 본 보고서는 그 조사결과를 분석한 일부로써 앞으로 계속 해서 보고될 것이다.

먼저 674명을 각 세부 그룹별로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그 그룹의 특성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표III-2〉에서 살펴 보았듯이 시청 공무원, 고교 교사 및 농협과 은행 직원들은 약 55%에서 60%의 흡연율을 보였다. 이것은 그 직장의 스트레스의 정도와 밀접히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관계는 앞으로 동 설문지의 결과를 더 분석하여 감에 따라서 밝혀질 것이다. 요즘 각계 각층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과 경비삭감등은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부과시

키고 있다. 소위 'burn-out' 과 같은 현상과 흡연 및 음주와는 밀접한 상관이 있다. 여기에 보고된 결과는 김계현의 인용 보고한 수치(71%) 보다는 약 9%~14%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2학년 남학생의 경우도 김계현은 54%로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비해 본 조사의 제주도내 3개교의 고교 2학년 남학생의 흡연율은 약 29%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대학생의 경우도 남녀 구성 비율에 따라 그 흡연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본 조사에서 대학 3학년은 대부분이 여학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흡연율은 약 17%인데 비하여 대부분이 남학생으로 구성된 타 대학 2학년의 경우는 흡연율이 약 66%로 나타나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후자의 경우는 일반 직장인 보다 약 11%~6% 정도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억압된 고교 미성년 생활에서 해방된 '자유(?)' 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도 여학생의 경우는 전통적 관습을 상당히 따르는 보수적 경향을 보인다. 본 조사에서 여대생의 흡연율은 대단히 낮은 2.4%에 불과했다.

흡연을 하게 되는 주된 동기로는 일반인이나 고교생 대학생 공히 '친구들과 어울려서 호기심으로' 가 으뜸이며, 일반인의 경우는 군입대 또는 방위근무로 인해서 흡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약 1/4 정도였다. 이는 새로운 환경으로의 전환과 그 분위기가 비흡연자를 흡연자로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다. 집단의 압력(group peer pressure)이 인간의 행동에 막강한 효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흡연하는 양을 분석한 결과 고교생은 약 83%가 10개비(반갑)이하라고 보고하였으나 이 비율은 대학 2학년이 되면 경충 뛰어서 약 60%의 학생이 11~20개비로 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Wilson(1997)의 보고한 바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2년내에 가벼운 흡연에서 골초(heavy smoker)로 전환한다는 사실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물론 흡연량이 많고 적음이 문제도 되겠지만 흡연을 하는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이다.

흡연을 시작한 연령도 급강하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인의 경우는 약 93%가 18세 이후에서 처음시작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교생의 경우는 10~13세에서도 약 8%가 14세~17세가 약 70%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는 10~13세에 시작했다고 반응한 경우는 단 한사람밖에 없었다. 대부분이 18세에서 21세 이후에 시작한 것으로 보였다(약 60%). 전체적 경향을 볼 때 26세를 넘어서 시작하는 경우는 펍이나 드문 것으로 0.7%(2명)였다. 따라서 흡연의 예방은 조기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이 주로 즐겨 피우는 담배 상표는 '디스(THIS)' 가 제 1위였다. 고교생들은 '말보로

(MALBORO)가 제 2위의 선호 상표였다.

담배의 구입은 상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약 80%가 그렇게 했으며 고교생의 경우 상점주인 또는 종업원들로부터 판매거부를 당한 경험은 있지만 별 문제없이 담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현시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20-70%가 그들의 담배를 직접구입할 수 있다는 보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 하겠다.

흡연양을 줄이거나 단연(quit smoking)을 시도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아 약 80%가 되지만 성공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이며, 전문 상담가의 조력이 가해진다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담배를 피우고 난 직후의 속이 메스꺼움을 느끼는 경향은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흡연에 습관화되어서(중독이 되어서) 덜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만약 aversive treatment 방법을 기용하는 상담 방법을 태할 경우는 나이가 어릴수록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흡연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의사와 상의한 경우는 펍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흡연장소로는 아무데서나 흡연한다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간접 흡연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

또한 담배갑에 적힌 경고문은 상당수의 흡연자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의 53%). 좀더 적극적인 눈에 띄는 그리고 의식할 수 있는 경고 또는 다른 방법이 연구 보강되어야 한다. 상당히 의식을 하면서도 그러한 해를 부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음을 김계현(1997)은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경향도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의식이 무디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흡연이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마치 'Russian Rule Game(예컨대, 6연발 피스톨에 실탄을 한발만 놓고 탄창을 돌리고 난 다음 자신의 머리를 향하여 쏘아서 살아남기하는 놀이)'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흡연은 단 일회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지 않는다. '아직도 살아남았다'는 안도가 흡연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불안정도는 고교생의 경우 일반인이나 대학생보다 상당히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음주시에는 흡연을 상당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이는 흡연의 해를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약 70%(고교생)에서 90%(일반인)이 음주시에는 담배를 평소보다 더 많이 피우는 것으로 반응했다. 본 설문조사는 흡연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간접적으로 나타남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흡연자의 대부분은 음주도 또한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으며, 고교생도 상당수 음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 흡연자의 약 85%가 음주도 한다.

## 참고문헌

- 김계현(1997). 상담심리학, 서울:학지사
- 송윤현(1993). 흡연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연구, 대전:충남대
- 심영애(1988). 서울시내 남녀고교생의 흡연에 관한 태도 조사연구, 서울:한양대
- 이은영(1992). 흡연 고등학생의 심리, 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연세대
- 한국 인삼연초 연구원(1993). 흡연과 건강, 대전:천일
- 한국 인삼연초 연구원(1995). 흡연위생연구, 대전:천일
- Bachman, J.G., Wadsworth, K.N., O'Malley, P.M., Johnston, L.D. & Schulenberg, J.E., Smoking, Drinking, and Drug Use in Young Adulthoo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997.
- Blaine, T.M., Forster, J.L, Hennrikus, D., O'Neil, S., Wolfson, M., & Pham, H., Creating Tobacco Control Policy at Local Level: Implementation of a Direct Action Organizing Approach, Health Education & Behavior, Vol. 24(5), pp. 641-651, 1997.
- Herman, D.S., & McWhirter, J.J., Refusal and resistance skill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 selected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 75, pp.177-187, 1997.
- Miller, L.K.(ed.), Principles of Everyday Behavior Analysis, CA: Brooks/Cole, 1997.
- Newsweek, Cigars are Cool?: Why America Got Hooked on a Stinky Trend, July, 1997.
- Wetter, D.W., Fiore, M.C., Gritz, E.R., Lando, H.A., Stitzer, M.L., Hasselblad, V., & Baker, T.B., The agency for health care policy and smoking cessation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sts, American Psychologis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53(6), 1998.
- Wilson, H.T.(12th ed.), Drugs, Society, and Behavior, CT: Dushin/McGraw Hill, 1997.

<abstract>

## Survey on the Smoking Behavior

Lee, Do-young

The purpose of this report was to investigate the trend of smoking behaviors in three different groups of people: (1) adults (city officers, bank workers, high school teachers and attendants in a seminar); (2) high school students(juniors, 11th grade); and (3) college students. Number of subjects was 674. The sample of the survey on the smoking behavior is attached at the end of this report.

The results of respond were reported in terms of the descriptive statistics about smoking groups only in this report. Further statistical analysis will be done when the second report is coming. The partial report have showed very interesting results among those groups: (1) The rate of smoking among group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2) The rate of adults who were smoking was about 60% in average, the rate of high school students was 29%, and the rate of college students was 66% in one group(most of them were male) and 17% in other group (majority of the group were females); (3) The major motive of smoking was the group peer pressure; (4) The number of cigarettes that consumed in a day was 11-20 (56%) among adult group, less than 10 cigarttes among high school students(83%), and 11-20 cigarettes among college students(58%); (5) The onset age of smoking was 18-21 among adult(59%), 14-17 among high school students(69%) and at age 10-13 (8%), and age 14-17 among college students (27%) and 18-21 (60%); (6) Most of people who were smoking felt disgusting right after smoking but this kind of feeling had been reduced when they became older; (7) Most of the smokers became heavy smokers right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and getting into outside 'free' world; (8) Most of the adults also didn' t care about smoking place, that is they smoked anywhere (63%); (9) 57% of adults smokers were not concern about the waring phrase on the cigarette case, 27% among high school, and 41% among college; (10) About 80% of smokers as a whole had been trying to quit or reduce their smoking, but failed to do so; and (11) The most dangerous behavior among the smokers was drinking alcohol, that is when they were drinking they smoked more than usual. It amplified the harmful effects of smoking as shown in many studies.